

---

2013년  
겨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학술대회

12월 14일 오후 2-6시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조형갤러리

국민대학교에서 열리는 아홉 번째 학술대회는 연구 발표, 총회, 그리고 기획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발표는 한국 근대시의 조건과 당시에 나타났던 타이포그래피적 상상력의 관계를 살펴보는 박현수 교수의 초청 강의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강조와 인용을 위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한글 흘림체에 대한 정영훈 님의 발표와 초기의 인쇄본에서 시작된 플러런 장식 활자에 대한 이병학 님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호부터 국제 타이포그래피 저널로 발간되는 «글짜씨» 기획에 대한 김지현 회장과 김병조 출판국장의 발표가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과 회계 보고, 2014년 사업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전 개전식입니다. 안병학, 박연주 전시 이사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최소한의 조건 위에서 텍스트와 의미의 관계를 탐험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35개의 낱말을 35명의 디자이너가 앞뒤 맥락을 모른 채 디자인한 결과와 전체 문장을 개전식에서 공개합니다.

연구 발표

- 14:10-15:10 초청 강의. 박현수
- 15:30-16:00 논고 1. 정영훈
- 16:00-16:30 논고 2. 이병학
- 16:30-16:45 김지현, 김병조: 새로운 «글짜씨»

총회

- 17:00-17:30 2013년 사업 보고 및 2014년 사업 계획

기획전

- 17:40-18:10 개전식(조형관 1층 조형갤러리)

전시 기간: 2013년 12월 14-22일

김나영, 고선, 김재민, 김창식, 안병학, 박연주, 민병걸, 이지원, 김지현, 김병조, 박수진, 정영훈, 구본영, 선우현승, 허민재, 구슬기, 김지원, 서승연, 김묘수, 서진수, 김현경, 이재민, 한재준, 민구홍, 김동신, 김진숙, 함성아, 황준필, 이병주, 정재완+전가경, 최기웅, 김진, 크리스로, 성재혁, 김선화, 박우혁, 박지나

연구 발표

- 박현수: 한국 근대시의 조건과 타이포그래피적 상상력**
- 정영훈: 한글 폰트에서 강조 및 인용을 표시하기 위한 글자체 디자인**
- 이병학: 인쇄가의 꽃 - 플러런에 대하여**

# 한국 근대시의 조건과 타이포그래피적 상상력

박현수,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신문화연구 2008년 여름호  
제31권 제2호(통권 111호)에  
'한국 전위시의 조건과 근대출판의  
시학'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활자 냄새가 이상스런 흥분을 일으키도록 향기롭다. 우리들의 시(詩)가 까만 눈을  
깜박이며 소근거리고 있다. 시는 활자화한 뒤에 훨씬 효과적이다. 시의 명에는  
활자직공에게 반분하라. 우리들의 시는 별보다 알뜰한 활자를 운율보다 존중한다.  
운전기를 지나기 전 시는 생각하기에도 촌스럽다. (정지용 <소묘>, 1933)

나는 시의 인쇄를 인쇄공에게만 맡길 수 없다. 인쇄는 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김기림)

## 1. 시의 본질과 매체의 상상력

문학의 본질은 매체의 본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시의 등장 역시 시를 실현할  
매체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매체의 상상력이 시의 범주와 본질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연구가 매체 연구와 결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체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시의 범주는 통시적으로 크게 전통시(traditional poetry),  
근대시(modern poetry), 탈근대시(postmodern poetry)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매체는  
각각 음성, 활자, 디지털언어가 된다.

## 2. 근대적 전위시의 조건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적 상상력

한국 문학에 있어서 근대적 전위시에는 다다이즘적 형태 실험이 먼저 나타나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작품은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한다. 활자의 크기와 배치를 통한 정지용의  
형태 실험 등 이전 한국 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을 필두로, 소수에 의해  
파급되던 이런 전위시는 1930년대 들어 김기림, 이상, 삼사문학 동인들에 의해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전위시는 인쇄매체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전통시에서처럼  
인쇄물을 음성중심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여 음성의 필사물(筆寫物)로 여길 경우,  
새로운 매체의 특성이나 가능성은 포착될 수 없다. 또한 인쇄매체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대 인쇄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전위적인 시는 발표될 수 없었을 것이다.  
1920년대 중반, 다다이스트에 의한 전위시 창작은 단순한 기법의 수입이 아니라 당대  
출판문화의 성숙이라는 시대적 조건과 맞물림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런 인쇄 환경의  
발달이 인쇄매체에 대한 전위시인들의 능동적인 인식과 맞물려 '타이포그래피적  
상상력'을 갖춘 문학적 실험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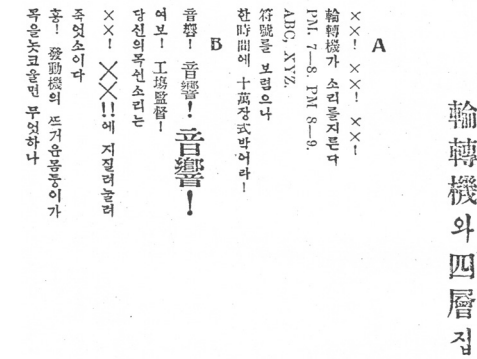
## 3. 전위시, 근대출판의 시학

전위시에서 구현되는 타이포그래피적 상상력의 구체적인 특성을 정리하는 것은 곧 근대

인쇄매체의 시학을 요약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특성들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서로가  
서로의 표면이자 이면이 된다. 이 특성들을 음성의 사물화, 형태의 메시지, 관념화된  
평면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 3.1. 음성의 사물화

[그림 1] 김니콜라이, <운전기와  
사출집> 부분. 활자들이 입체적인  
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변주되고,  
소리내어 읽기 어렵게끔 음성이  
축출되면서 청각은 시각으로  
대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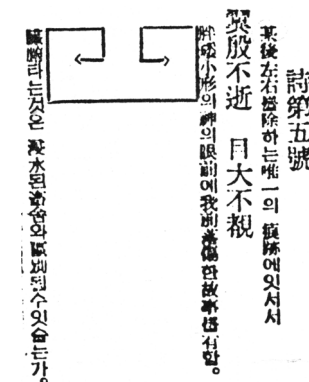
### 3.2. 형태의 메시지

[그림 2] 이상, <오감도 시제4호>  
전문. 발음이 불가능하고 읽히지  
않으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부호를  
형성하는, 시각적 형태만을 통한  
메시지



### 3.3. 관념화된 평면 (an abstracted plane)

[그림 3] 이상, <오감도 시제5호>  
전문. 이전과 다른 지각작용의  
개입과 지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난해성



#### 4. 당대 매체의 조건에 대한 시학적 반응

근대시 중 아방가르드시, 즉 전위시는 인쇄문화의 가능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실험했다. 한국 아방가르드의 실험성과 전위시인들의 타이포그래피적 상상력은 단순한 문학적 기법의 이식이 아니라 당대의 구체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학적 반응이었다.

정영훈의 석사논문 '한글 폰트에서 강조 및 인용을 표시하기 위한 가족체 디자인'(국민대학교 대학원, 2013)의 일부 자료를 발췌 편집한 논문으로서 해당 내용에 알맞게 제목을 위와같이 변경 하였음을 밝힙니다.

## 한글 폰트에서 강조 및 인용을 표시하기 위한 글자체 디자인

정영훈

### 1. 서론

번역서 또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조판할 경우 국문에서 문장부호가 더 많이 쓰이는데, 이는 로만알파벳의 이탤릭체에 상응하는 글자체가 한글에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 문장부호가 쓰이다 보면 그에 따라 기능이 세분되고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그렇기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문장부호의 기능을 정의하여 알리고 있다. 하지만 문장부호의 쓰임을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출판사에서 독자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거나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모든 문장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로만알파벳의 이탤릭체에 상응하는 글자체가 한글서체 중에는 없을까?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시작했다.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개정안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열린책들' 출판사에서 출간 한 '열린책들 편집매뉴얼'의 강조 및 인용을 표기하기 위한 문장부호와 비교하였다. 열린책들 편집매뉴얼은 문장부호의 쓰임을 정의하여 책으로 출간하고 있기에 서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새로이 문장부호의 기능을 정의 하였기에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 된 경우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개정안과 열린책들 편집매뉴얼의 문장부호에서 강조 및 인용 등의 표기방법을 비교하고, 중복된 기능을 제거한 후 문장부호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경우를 찾아내어, 여러 문장부호를 한글 이탤릭체로 대체하여 본문을 조판하고 변별력과 유사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 할 수 있도록 글자체 디자인 방법을 연구한다.

### 2.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사례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개정안'과 '열린책들 편집매뉴얼'에서 정의하는 문장부호의 기능은 달랐고,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개정안'에서 정의 한 강조 및 인용등을 표시하기위한 문장부호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드시 문장부호를 사용해야 하는경우와 중복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부호를 남겨놓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대부분의 기능이 로만 알파벳의 이탤릭체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 3. 한글 폰트에서의 강조 및 인용 부분을 문장부호 이외의 표시할 수 있는 글자체

정자체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구조로 흘림체, 탈네모틀, 사체, 역사체, 볼드, 밑줄, 그림자 이렇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고, 구분한 글꼴들의 골격을 추출 하였다.

일곱 가지 종류의 한글 폰트와 정자체를 섞어서 조판한 후, 각각 유사성과 변별력 정도를 평가했을 때, 탈네모틀은 변별력보다 유사성이 떨어져 보이고, '사체(기울인 글자체)', '역사체(사체를 반대로 기울인 글자체)'는 같은 골격의 글자체를 기울였기 때문에

유사성은 있지만, 변별력은 떨어져 보였다. 볼드체는 형태적으로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쓰임이 강조만으로 국한될 수 있고, 밑줄과 그림자 또한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볼드체와 같이 쓰임이 국한될 수 있다. 흘림체는 앞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글자체보다 유사성과 변별력에서 더 확실하며, 로만알파벳의 이탤릭체에 상응하는 글자체 디자인의 골격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하다. 탈네모틀은 변별력보다 유사성이 떨어져 보이고, 사체, 역사체는 같은 골격의 글자체를 기울였기 때문에 유사성은 있지만, 변별력은 떨어져 보였다.

볼드체는 형태적으로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쓰임이 강조만으로 국한될 수 있고, 밑줄과 그림자 또한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볼드체와 같이 쓰임이 국한될 수 있다. 흘림체는 앞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글자체보다 유사성과 변별력에서 더 확실하며, 로만알파벳의 이탤릭체에 상응하는 글자체 디자인의 골격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하다.

흘림체는 정자체와 골격의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변별력을 갖추고 있으며 탈네모틀, 사체, 역사체보다 글자 골격에서 정자체와 유사하다. 정자체와 흘림체는 모두 같은 뿌리인 붓글씨에서 이어져 왔다. 흘림체는 정자체와 골격의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형태가 달라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

#### 4. 문화체육부 바탕체와 문화체육부 쓰기 흘림체 사례 조사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바탕체’와 ‘문화체육부 쓰기 흘림체’는 1991년 총 9종으로 개발되었다. 각 9종의 글자체는 제목용, 본문용 등 용도에 따라 기능을 분류하여 개발되었다. ‘문화체육부 바탕체’와 ‘문화체육부 쓰기 흘림체’는 같은 골격으로 다른 두 서체가 디자인된 경우로,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이 되었다. ‘문화체육부 바탕체’의 쓰임은 가로쓰기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하지만 ‘문화체육부 쓰기 흘림체’는 글자의 중심축이 우측으로 치우쳐 있어서 가로쓰기 보다 세로쓰기에 더욱 적합하다.

현재는 대부분 조판에 있어 세로쓰기 보다는 가로쓰기의 비중이 많기에 ‘문화체육부 바탕체’와 ‘문화체육부 쓰기 흘림체’를 혼용조판 할 경우, 가로쓰기에 적합한 골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부 바탕체’와 ‘문화체육부 쓰기 흘림체’는 골격의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족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글자체를 가족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로쓰기에 적합하게 중심축이 중앙으로 이동해야 한다.

#### 5. 한글 흘림체의 골격과 형태적 특징 조사 및 실험

획의 이음선과 각도 등 흘림체의 두드러진 특징에 관하여 골격과 형태의 특징을 실험 하였다. 실험을 통한 흘림체의 주요특징은 이음선과 기울기라고 판단하였다. 정자체의 골격에 흘림체의 특징인 이음선과 기울기를 적용하여 정자체와 유사한 흘림체의 기울기를 추출하였다.

#### 6. 한글 흘림체 네모틀 골격을 이용하여 흘림체의 특성을 적용한 글자체 디자인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각날달랄맘밭삿앙짗찰각탄팍항

뉴요커 프래드릭 가우디

알파벳 찬미자

레터링의 기본 타이포로지아

타이포그래피카 타이포그래피와

글꼴 디자인을 위한 팸플릿 아츠

타이포그래피카 뉴욕 말보로 지역

빌리지 출판사 나는 타이이다

타입이 말한다 나는 타이트하다

#### 7. 결론

한글에서는 강조 및 인용을 표시하기 위해 대부분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로만알파벳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한글에는 이탤릭체가 없기에 로만알파벳에 비하여 더 많은 문장부호를 써야 하고, 그 때문에 문장부호의 기능이 복잡하다. 국립국어원에서 문장부호의 기능을 정의했지만, 현재 여러 출판사 발행하는 편집물의 문장부호 사용에는 차이점이 많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글 이탤릭 디자인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방법을 개발하여 흘림체를 디자인했다. 로만알파벳 폰트는 이탤릭체를 하나의 가족체로 둔다. 한글 흘림체 또한 독립된 서체가 아닌 가족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대부분 문장부호로 대체하는 본문 조판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장부호를 사용했을 때 보다 조형성과 시각적 유려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인쇄가의 꽃 - 플러런에 대하여

이병학

### 1. 서론

디자인과의 신입생이거나 비전공생들이 만든 PPT일수록 내용에 비해 템플릿이 화려한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점차 '내용물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요소는 최대한 투명하게 한다.'라는 기술을 알게 모르게 체득해나가기 시작하고 졸업전시에서 최소한 그들의 작품을 액자에 넣지는 않는다. 대신 교묘하게 포스터의 가장자리에 작은 글씨의 글줄을 삽입한다거나 아름다운 장소에 촬영한 사진에 합성하여 작품의 최소한의 구조적 경계를 표현할 것이다. 액자를 만들고 꾸미려는 이러한 본성은 다분히 인간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교정하려고 힘쓰기보다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문제의식을 두어야 한다. ① 이를 교정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이에 대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기에, 맥루언의 말대로 ② 나는 내용물과 액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찾아가보고자 하였다. 역사를 되짚어 본 결과, 초기의 인쇄본에서 시작된 '플러런(Fleuron)'이라는 장식 활자 및 그 배경이 된 '아라베스크 양식'이 본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플러런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연유로 오늘날 디지털 글꼴에까지 포함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처음이자 끝이다. 다행히 20세기 초 영국에서 동명의 학회를 중심으로 플러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었기에 스탠리 모리슨과 에머리 워커의 연구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 글은 그들의 번역 및 주석에 불과하다. 모더니즘의 폭격에 묻혀 적어도 국내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았던 이 장식 활자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왼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표제지의 분리

스탠리 모리슨(Stanley Morison)은 그의 'First Principles of Typography'에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쇄의 역사는 표제지의 역사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필사본에서 활자 인쇄로의 이행과정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책의 구조적인 변화는 표제지(title page)의 등장이다.

쇄피의 시편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표제지가 사용되긴 했지만, 그 내용은 '간기(刊記)'에 가까웠다.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표제지는 1478년 베니스에서 에르하르트 랫돌트(Erhard Ratdolt)가 간행한 아우크스부르크의 요하네스 레지오몬타누스(Joannes Regiomontanus)의 '역서(Kalendar)'이다. '역서'의 표제지에는 상단과 양 측에 줄무늬 형태의 목판(woodcut)장식이 위치하며 하단에는 인쇄가의 이름이 간단한 매듭형태를 가진 두 개의 장식 조각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목판장식이 분절되어 작은 정방형의 형태로 축소된 이 두 개의 목판 조각이 지오반니(Giovanni)와 알베르토 알비제(Alberto Alvise)형제가 사용한 꽃무늬

활자(fleuron)의 원형이 되었다. 랫돌트의 표제지는 독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장식적 요소와 함께 책의 내용이 요약되어 담겨 있었기에 3판 및 다국어로 간행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 3. 플러런의 기원

랫돌트의 작은 목판 장식을 활자와 함께 동시에 조판된 수 있도록 금속활자로 발전시킨 것이 플러런의 기원이 되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베로나의 지오반니(Giovanni)와 알베르토 알비제(Alberto Alvise)형제의 것이다. 1478년 4월 28일 출간된 '죽음의 기술'은 이후 15세기 내내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으며, 1501년까지 필사본 형태와 목판 인쇄본, 활판 인쇄본 등을 포함하여 적어도 65가지의 판본이 제작되었다. 단 두 가지의 플러런만으로 다양하게 장식되어 있는 '죽음의 기술'의 지면들에서 플러런은 글자와 함께 조화롭게 조판되어 있으며, 제작의 효율성과 함께 장식의 풍부함 또한 달성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간행된 랫돌트의 'Appian'에 비하면 형태의 복잡성이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업적 성공은 장식 활자의 가능성을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금속활자로 매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플러런은 오늘날의 디지털 폰트에서도 글리프(Glyph)라는 구조적인 형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 4. 알두스의 'Aldine leaf'

오늘날 디지털 폰트의 문자셋에 포함된 플러런들은 지오반니 형제가 최초로 사용했던 것에 비하여 형태적으로 좀 더 단순하고 뚜렷한 이파리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오늘날 작은 이파리처럼 보이는 플러런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 종종 'Aldine leaf'로 불린다. 알디네 고전에서 보이는 간결함과 효율성의 원리 하에서 그는 수많은 양의 아라베스크 문양들이 가진 곡선들을 단순화하여 금속활자의 모듈로 조각하였다. 1502년 알두스 인쇄소에서 간행된 '헤로도토스(Herodotus)'의 표제지 상단에 로만체 대문자의 제목과 함께 한 쌍의 플러런이 조판되었다.

1517년 바젤의 프로벤(Froben)이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의 표제지에 사용한 것이 오늘날 유니코드에 포함된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완성도를 보인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의 안토니오 블라도(Antonio Blado)가 1532년 경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의 최초 인쇄본에서 '삼엽 플러런(trefoil)'을 사용하였고, 그 후로 이태리에서는 같은 원천에서 파생된 더욱 복잡한 형태의 플러런들이 나타난다. 베니스의 가브리엘 지올리토(Gabriel Giolito)는 1542년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데카메론(Decameron)'에서, 그리고 플로렌스의 로렌스 토렌티노(Laurence Torrentino)는 1548년의 'De Doctrina of Galeotti Martius'에서 세로방향의 플러런을 사용하였다. 1550년대 이후로 지올리토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플러런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복잡한 형태의 플러런들은 쇠퇴하였고, 리옹에서 재조합이 가능한 형태로 모듈화되기 시작하였다.

① 조윤경, 인터페이스의 담론과 문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33쪽  
 ②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7, 52쪽

## 5. 베르나르 살로몽의 목판 테두리 장식

16세기 중반 리옹(Lyon)에 위치한 장 드 투른(Jean de Tournes)의 인쇄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플러런들이 배열방식에 따라 수백 가지의 새로운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시도에 앞서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했던 거장의 아라베스크 목판 테두리장식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6세기 중반까지 투른 1세의 거의 모든 목판 장식을 조각했던 장인인 베르나르 살로몽(Bernard Salomon)은 1508년 리옹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기에 파리에서 공부하였으나, 1540년 투른 1세가 인쇄소를 차린 시점에 리옹으로 돌아온 후 투른 1세를 위하여 그는 평생을 바쳐 일했다. 그는 두 번 결혼하였으며, 그의 딸은 활자 조각가이자 제작자인 로베르 그랑종(Robert Granjon)과 결혼하였다. 로베르 그랑종은 리옹에서 파리로 옮겼는데, 살로몽의 아들이 그와 함께 일하였다. 그는 1560년에 일을 그만두고 1561년에서 1562년 사이에 타계하였다.

## 6. 그랑종의 플러런

전체적으로는 다르지만 부분적으로는 반복되는 유사한 패턴의 아라베스크 문양을 반복적으로 조각하는 과정에서 살로몽은 당시 본문에 함께 조판되어있던 플러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플러런들을 모듈화하여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면, 목판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의 테두리장식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결국 살로몽과 그랑종은 금속활자로 된 8개의 모티프가 다양한 구성으로 재조합되면서 수많은 형태의 테두리 장식, 머리띠(headband), 꼬리장식(tail piece), 부유형의 장식(floating fleuron)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플러런을 창조하였으며, 혁신을 가져왔다. 이 그랑종의 플러런은 1554년 실비우스(Guillaume Silvius)의 아라베스크 문양집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572년 이후로 실비우스가 계속 사용하였다. 결국 살로몽의 말기에 그랑종에게 주었던 많은 영감들로부터 그랑종은 자신의 플러런을 디자인하였다.

## 7. 사봉의 플러런

그랑종의 플러런과 더불어 다른 한 종류의 플러런이 당시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살아남았으며 그것은 1567년 앤트워프에서 플랑탱이 인쇄한 'Index Characterum(활자 견본)'에 클로드 가라몽(Claud Garamond)의 로만체, 그랑종의 이탤릭체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잭 사봉(Jacques Sabon)은 처음에 이그노프(Egenolffs)의 인쇄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앤트워프로 이주하여 플랑탱의 활자제작소에서 자모펀치 조각가로 일했다. 플랑탱이 그랑종과 주고 받은 서신을 통해서 플랑탱이 1566년 그랑종으로부터 플러런들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랑종이 로마로 떠나자 플랑탱은 그의 활자 및 플러런의 공급을 위하여 다른 재능있는 인재를 찾을 수 밖에 없었으며, 사봉이 그 물망에 올랐다. 그러므로 플랑탱의 'Index Characterum'에서 보이는 플러런들은 잭 사봉과 로베르 그랑종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디지털글꼴에서 이들이 'Fleuon Garamont'로 명명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 8. 소멸과 복원

활자 견본에 장식을 위한 플러런을 함께 신는 것은 관습화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루이 루스(Louis Luce)와 피에르 시몽 푸르니에(Pierre Simon Fournier), 지암바티스타 보도니(Giambattista Bodoni)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활자 견본에 오너먼트의 일부로 플러런들이 포함되었으나 보도니가 배스커빌의 예제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하였다. 플러런은 약 한 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19세기 말 넘쳐나던 저열한 석판인쇄장식에 염증을 느낀 영국의 에머리 워커, 스탠리 모리슨을 비롯한 영국의 타이포그래퍼들에 의하여 1916년 펠리칸 출판사(Pelican press)의 시작과 함께 복원되었다. 결국 스탠리 모리슨, 프레드릭 가우디, 브루스 로저스가 동시에 있었던 1920년 경의 모노타입에서 그랑종의 플러런이 가우디의 손에서 복각된 것이다. 스탠리 모리슨은 같은 1923년 프랜시스 메이넬(Francis Meynell)등과 함께 'The Fleuron'이라는 이름의 학회를 설립하였으며, 연구에서 그랑종의 플러런과 관련하여 주로 참고하고 인용한 'Printers' Flowers and Arabesques'가 'The Fleuron'학회지의 첫 번째 논문이었다. 1923년 펠리칸 출판사에서 간행한 'Typography'는 살로몽의 테두리장식을 복원하여 표제지를 장식하였고, 사봉의 플러런으로 내지의 테두리장식을 조판하였다.

## 9. 결론

제럴드 점퍼(Gerald Giampa)는 1983년 랜스턴 모노타입을 인수하면서 프레드릭 가우디(Frederic Goudy)의 활자들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 뒤로 모노타입 조판기에서 사용되었던 서체들을 디지털 폰트로 복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P22에서 판매하고 있는 70종의 폰트 중, 20종의 폰트가 오너먼트 기반의 서체이며, 그 중 'Fleurons Garamont'과 'Fleurons Granjon' 두 가지의 폰트가 그랑종과 사봉의 플러런이다. 16세기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플러런이라는 장식용 활자의 기나긴 여정이 디지털 폰트로 매개되면서 끝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오늘날이라도 되살려 열심히 사용하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 만약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옛 것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다. 12세기 아일랜드 지역의 필사본 장식이 그 어떤 공예작품도 무색하게 할 만큼의 밀도와 완성도를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쓸데없는 행동을 무시하고 버리기보다는 어떻게 이를 의미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회원 (2013년 12월 9일 기준)

정회원: 154명 (전년 대비 24명 증가)  
도서관 회원: 5개교  
기업 회원: 3사

2. 2013년 사업과 행사

한국폰트협회의와 연구사업 협동 협약식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18시, 한성대 미래관 소회의실  
협약 내용: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전문연구인력과 한국폰트협회의 기술개발체제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한글 유니코드 내 문장부호와 약물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연구성과와 기술정보를 교환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함.

'한글 유니코드 환경에서 약물과 부호에 대한 표준화 연구' 준비 세미나  
2013년 5월 6일 월요일 15-17시, 인쇄정보센타 7층 강당  
발표: 이용제

2013년 여름 학술대회  
2013년 6월 15일 토요일 14시 한성대 미래관 DLC  
김호영(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잉크와 종이의 상호작용 / 유지원: 서구 근대, 동아시아, 이슬람 공간과 컴포지션 / 이용제: 한글 유니코드 내 문장부호와 약물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 중간보고 / 최성민: 타이포잔치 2013 진행상황 보고

2013년 정기전  
주제: 타이포그래피 실험  
기간: 2013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장소: 인더페이퍼 갤러리, 갤러리 사각형  
개전식: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19시, 갤러리 사각형 포스터 디자인: 박연주

글짜씨 201306  
논고 - 안상수, 노민지, 노은유: 안상수체 2012의 한글 그룹 커닝 / 크리스 로: 아키타입 & 아키타이플, 이언 리넘: 현재 진행 중  
좌담 - 한글특별위원회: 한글디자이너로 심리적·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으며 생계를 이어 나가는 방법 / 김두섭, 김장우, 문장현, 유지원, 이용제, 이재민, 조현, 조현열: 기업 폰트가 브랜딩 및 타이포그래피 문화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대화: 이지원, 데이비드 카비앙카  
서평 - 박우혁: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오진경: 좌충우돌 펄권의 북 디자인 이야기, 유정숙: 좋은 문서 디자인 기본 원리 29  
리뷰 - 민본: 영국 레딩대학교  
» 디자인: 성재혁, 성예슬, 한나은  
» 편집: 신혜정, 정은주, 민구홍

타이포잔치 2013 토크  
2013년 8월 27-28일 14-20시,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홀  
8월 27일: 폴 엘리먼, 마크 오언스, 카를 나브로, 샤오마거, 하마다 다케시  
8월 28일: 무로가 기요노리, 오히라 다지로, 김기조, 존 모건, 롤 바우터르스, 아스트리트 제메  
진행: 이지원

타이포잔치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주제: 슈퍼텍스트  
기간: 2013년 8월 30일-10월 11일 10-19시  
장소: 문화역서울284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총감독: 최성민  
큐레이터: 김영나, 유지원  
www.typojanchi.org



### 타이포그래피 강의 1

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14-19시, 홍익대 홍문관 R420  
 심우진: 한글 활자는 이렇게 짜라 / 김현미: 서체는 어휘다  
 / 정병규: 훈민정음으로 돌아가자 / 김영나: (제목없음)  
 진행: 이재민

### 한글특별위원회 10-13차 좌담

일시: 2월 14일, 3월 22일, 6월 14일, 9월 13일  
 장소: 한글타이포그래피학교, 서울시청 11층 회의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아름관 701호  
 주제: 2013년 사업 계획, 한글유니코드 표준안 연구,  
 한글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글  
 글자체 저작권에 대하여  
 참석: 한재준, 이지원, 유지원, 구슬기, 노은유, 이용제,  
 김지현, 송성재, 오명은, 노민지, 심우진, 정석원,  
 이경배, 박상희, 박진숙, 김명선, 김슬옹, 이병석,  
 김주성, 김경희, 이대로, 정영훈, 김가희, 김혜창,  
 안삼열, 원명진, 천상현

### 3. 회의

#### 임원신년회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18시 30분, 신사동 테이블스타  
 참석: 김지현, 김주성, 한재준, 유정미, 임진욱, 조현,  
 이재민, 유지원, 크리스노, 안병학, 박연주, 김현미,  
 성재혁, 김묘수, 김병조, 함성아

#### 이사회 회의 2013-1

2013년 2월 7일 목요일 18시 30분, 이태원 홀리차우  
 참석: 김지현, 김주성, 유정미, 조현, 크리스노, 안병학,  
 박연주, 김현미, 성재혁, 김병조, 김묘수, 함성아  
 안건: 2013년 학술대회와 전시, 사업별 세부 계획

#### 이사회 회의 2013-2

2013년 3월 7일 목요일 18시, 한성대 연구관 소회의실  
 참석: 김지현, 김현미, 박연주, 성재혁, 유정미, 유지원,  
 이재민, 크리스노, 김묘수, 김병조, 함성아  
 안건: «글짜씨» 세부 기획과 타이포그래피 어워드

### 이사회 회의 2013-3

2013년 4월 5일 금요일 18시, 사당동 Mad for Garlic  
 참석: 김지현, 김주성, 김현미, 박연주, 안병학, 유정미,  
 유지원, 이병주, 이재민, 임진욱, 조현, 크리스노,  
 최성민, 김묘수, 김병조, 함성아  
 안건: 여름 학술대회 및 타이포잔치 2013, «글짜씨»,  
 정기전, 폰트협회 협약

### 이사회 회의 2013-4

2013년 6월 7일 금요일 19시, 연남동 매화  
 참석: 김지현, 안병학, 유정미, 유지원, 이재민, 임진욱,  
 조현, 성재혁, 함성아  
 안건: 여름 학술대회 및 정기전 진행, 홍보

### 이사회 회의 2013-5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19시 30분, 합정동 버레별씨  
 참석: 김지현, 안병학, 박연주, 유지원, 김현미, 성재혁,  
 김병조, 함성아  
 안건: 상반기 사업 정산 및 «글짜씨» 원고 및 일정,  
 타이포그래피 강의 기획

### 이사회 회의 2013-6

2013년 10월 2일 목요일 19시, 서울역 이즈미  
 참석: 김지현, 유정미, 임진욱, 성재혁, 박연주, 김현미,  
 크리스로, 김병조, 함성아  
 안건: «글짜씨» 현황 점검과 개편 논의, 겨울 학술대회와  
 기획전, 타이포그래피 강의 세부 기획

### 학술출판분과 임시회의

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21-23시, 카페베네  
 서울대역점  
 참석: 김지현, 유지원, 김병조, 함성아  
 안건: 타이포그래피 강의와 겨울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

### 이사회 회의 2013-7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18시 30분, 개화옥 가로수길점  
 참석: 김지현, 유정미, 임진욱, 안병학, 성재혁, 김현미,  
 크리스로, 이재민, 함성아  
 안건: 겨울 학술대회 및 기획전

### 4. 회계

2013년 1월 1일 이월금 10,545,224원

내역	수입	지출	비고
정회원 입회비	1,200,000	0	—
정회원 연회비	5,100,000	0	—
도서관 회원	800,000	0	—
기업회원 입회비+연회비	400,000	0	—
한글폰트협회 연구비	5,000,000	5,000,000	한글특별위원회 전달
2013 여름 정기전	3,700,000	4,448,350	도록과 상패 제작, 도우미, 진행 등
2013 겨울 기획전	1,100,000		
2013 여름 학술대회	700,000	1,252,050	준비비, 발표집 제작, 특강료 등
타이포그래피 강의 1	4,200,000	1,856,450	포스터와 버튼 제작, 강의료 등
웹하드 및 웹 사이트 관리	0	871,430	
회의비	0	1,156,930	이사회 총 7회, 협약식 관련
글짜씨	700,500	1,349,850	7호
		651,000	8호
우편비	0	530,690	
«글짜씨», «타이포그래피 사전» 판매	2,091,200	0	
사무국	0	4,473,600	인건비, 사무용품, 법무/등기건,
한국연구재단 지원 등			
기타	8,621	74,000	주민세, 결산 이자, SMS 수수료
합계	24,299,821	21,664,350	
잔액		13,180,695	

##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정관

### 제1조 — 명칭

본 학회는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Korean Society of Typography)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타이포그래피 관련 학술연구 및 작품 활동, 문화 확산에 힘쓰는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대한민국에 둔다.

### 제4조 — 활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행한다.

- 1 학술연구지, 정보 자료집 등 학술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행
- 2 학술발표회, 작품전시회의 개최
- 3 국내외의 관련 학회와의 교류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 — 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로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타이포그래피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 2 명예회원: 본 학회 및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 3 특별회원: 도서관 회원, 기업회원 등

### 제6조 — 회원 가입

본 학회에 정회원으로서 가입하고자 하는 이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제7조 — 회원의 의무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입회비 등 부담금의 납부

### 제8조 —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자료집 등의 수취에 대한 권리
- 2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 3 회장 또는 임원에 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4 총회에 참석하여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제9조 — 회원의 징계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 —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부회장/사무총장 각 1인,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 제11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

-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임한다.  
가. 회장은 총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나. 부회장과 사무총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단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이후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13조 — 총회

- 1 총회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 2 회장은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재적 회원 1/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학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은 전체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참석으로 간주하고 제출된 서면위임장은 총회의 개회 전에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5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 변경 및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 제14조 — 이사회

- 1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만 한다.
- 2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협의운영에 대해 협의, 결정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운영세칙'으로 활용한다.
-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 4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위임장은 이사회 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제15조 — 재정

- 1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입회비 및 모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 — 회계 및 회계감사

- 1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7조 — 해산

본 학회의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18조 —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를 통해 발의되고, 총회를 통해서 의결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논문 투고 규정

####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글짜씨» 논문 투고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투고 자격

«글짜씨»에 투고 가능한 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및 명예회원이며, 공동 연구일 경우라도 연구자 모두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 — 투고 유형

본 학회의 학술지 «글짜씨»에 게재되는 논문은 미발표 원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본 학회에서의 발표, 심포지움이나 국제회의, 국외대학 등에서의 발표, 대학의 논총이나 연구소, 회사 등에서의 연구보고 등으로 국내에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은 «글짜씨»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을 참고문헌 뒤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차례와 주제어를 기술해야 하며 참고문헌과 주석에서 서지정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1 연구 논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
- 2 프로젝트 논문: 프로젝트의 결과가 독창적이고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전개 과정이 논리적인 것
- 3 논설: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발표된 작품이나 이론적 주장, 타이포그래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접근을 독창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하거나 논리적인 분석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한 것
- 4 기타: 그 외 독창적인 관점과 형식으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술한 것

#### 제4조 – 투고 절차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고, 게재할 수 있다.

- 1 학회 이메일로 수시로 논문 투고 신청
- 2 논문 투고시 논문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
- 3 심사료 100,000원을 입금
- 4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 심사
- 5 심사 완료 후 투고자에게 결과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학회 이메일로 이의 신청서 제출)
- 6 논문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 게재비 100,000원 입금
- 7 논문집은 회원 1권, 필자 2권 씩 우송
- 8 논문집 발행은 6월 30일, 12월 31일 연2회

#### 제5조 – 저작권 및 출판권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며, «글짜씨»의 편집출판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논문 작성 규정

##### 제1조 – 원고 작성 방법

- 1 글은 doc/txt 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특수한 경우 indd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림은 흑백 이미지로 제출한다.
- 2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은 한글과 영문으로 수록한다. 공동저자가 있을 시 제1연구자는 상단에 표기하고 제2연구자, 제3연구자 순으로 그 아래에 표기한다.
- 3 요약은 한글을 기준으로 800글자 안팎으로 하여 한글 요약과 영문 요약을 수록하며, 그 내용은 논문 전체의

- 요약이어야 한다.
- 4 주제어는 최대 5개 한글/영문으로 수록한다.
  - 5 논문 형식은 서론/본론/결론/주/참고문헌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단, 주석과 참고문헌은 반드시 연구 내용 뒤에 수록한다.
  - 6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단, 외국어 고유명사는 처음에만 외국어 병기할 수 있다.
  - 7 각종 기호 및 단위의 표기는 국제적인 관용에 따른다.
  - 8 그림과 표는 흑백 300 dpi 이상으로 작성하며, 제목이나 설명은 본문 또는 그림, 표에 함께 기재한다.
  - 9 참고문헌 나열은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웹사이트 순으로 하고 그 구분 내에서도 한글, 한자, 영어 순서로 하며, 한국어 발음상 가나다순,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또한 각 문헌은 저자, 논문명(서적명), 학회지명(저서일 경우 해당없음), 학회명 또는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기술한다.

##### 제2조 – 원고의 분량

본문 활자 10포인트를 기준으로 A4 6쪽 이상 작성한다.

##### 제3조 – 인쇄 원고 작성

- 1 학회에서 디자인하고, 투고자가 확인한 다음 인쇄한다. 원고 확인 후 원고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 2 학회지 크기는 168 x 240 mm로 한다.
- 3 내지는 먹 1도를 기본으로 한다.

####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연구논문집 «글짜씨»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논문의 채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논문 채택

논문의 채택 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논문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통과를 판정할 경우 게재할 수 있다.

- 2 논문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하면 논문편집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의하고 통과 판정을 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사 이하의 판정을 할 경우 재심사 후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4 논문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명 이상이 불가 판정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 제3조 – 논문편집위원회

논문편집위원회는 투고 된 연구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모든 심사 결과를 검토하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이 반송 지정 일까지 다시 제출되지 않을 경우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

##### 제4조 – 심사위원

- 1 «글짜씨»에 게재되는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관련 전문 연구자 중에서 논문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촉한다.
- 3 논문심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통과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불가

##### 제5조 – 심사 내용

- 1 연구 내용이 학회의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 영역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 2 논제와 주장이 명확하고 학문적 독창성이 있는가?
- 3 논문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4 논문의 기술 및 표현이 학회의 작성규정에 따라 기술되었는가?
- 5 국문 및 영문 요약의 구조 및 내용이 적합한가?
- 6 참고문헌 및 주석의 서지정보가 정확한가?
- 7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며, 주제어가 내용에 적합한가?

#### 연구 윤리 규정

##### 제1조 –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회원이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해당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3조 – 연구자의 순서

논문의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 – 표절

논문 투고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5조 – 연구물의 중복 게재

논문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인 연구물 포함)을 사용하여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단, 국외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한글로 발표하고자 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연구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게재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연구자는 중복 연구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 –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 — 공평한 대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및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8조 —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 —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10조 —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11조 — 비밀 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1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2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 윤리위원회의 권한

-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2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면 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 —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 1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각 항의 제재가 병과될 수 있다.  
가.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다. 향후 3년간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 2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사무국**

우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연구관 705호

info@koreantypography.org

koreantypography.org

twitter.com/kr\_typography

facebook.com/krtypography

기업은행 689-009991-01-017

사단법인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회장. 김지현

부회장. 김주성

정책 기획 이사. 유정미, 임진욱

대외 협력 이사. 조현, 이재민

학술 출판 이사. 유지원, 크리스로

대외 전시 이사. 안병학, 박연주

국제 교류 이사. 김현미, 성재혁

해외 위원. 김진숙(미국), 이지은(일본), 민본(영국)

한글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재준

용어사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홍

타이포잔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주

타이포잔치특별위원회 총감독. 최성민

감사. 정병규, 류명식

출판국장. 김병조

사무국장. 함성아

